



+ 화전동

고양과 서울 경계선에는 화전동(花田洞)이 있다. 화전동 동쪽에는 봉산, 북쪽에는 망월산이 있고 서쪽에는 창릉천이 흐른다. 예부터 이 지역에 꽃이 많아 꽃밭을 이루었다고 하여 화전리라고 불렀다. 1992년 고양군이 고양시로 승격되면서 화전동이 되었다.



숨은 재미가 펼쳐지는 동화길

벽화향기 동화길은 양지마을 앞에 자리한 군부대 시설의 군인 캐릭터와 꽃 그림으로 시작된다. 2017년에 조성된 이 길은 화전동을 사랑하는 자원 봉사자들의 손길로 탄생했다. 다른 길과 다르게 그림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재미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양 전래동화 속 명장면을 그린 벽화가 ‘숨은그림찾기’로 재구성되어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전래동화 벽화는 ▲용구재 이무기제 이야기, ▲베라산 마을의 아기장사, ▲숫 고개와 태조 이성계, ▲공양왕의 점박이 삼살개, ▲효자 박태성과 인왕산 호랑이, ▲꼬마장군 물돌이, ▲한강의 딸 한구슬, ▲고양의 잔다르크 밥할머니, ▲고봉산 고 씨와 심학산 심 씨 등 총 9개로 구성되어 있다. 벽화 옆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숨은 그림의 정답으로 연결된다. 또한 화전동 벽화마을 전체 지도와 작품 및 고양특례시 관광 안내도 받을 수 있다.

2013년 5월 방송된 SBS ‘런닝맨’에 등장한 작은 슈퍼마켓이 길목에 자리하고, 이어 닭 집, 방앗간, 문구점 등 요즘 도심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풍경들은 어린 시절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누군가의 다리가 쉬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놓인 의자들은 마을의 정겨움을 완성하고 있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양로78번길 일대

+ 화전역

수색역과 강매역 사이에 있는 ‘화전역’은 1954년 간이역으로 운행했다. 1973년 보통역으로 승격, 1987년 을종대대소로 격하되었다가 2009년 경의선 전철이 개통하며 신역사로 이전했다.



하늘과 맞닿은 달맞이길과 알록달록 무지개길

마을 슈퍼를 기점으로 양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온다. 화전동의 제일 높은 지역에 있는 벽화향기 달맞이길은 동네가 연결된 좁은 골목길에 가깝다. 골목길을 올라가면 은적사라는 절이 나온다. 벽화를 따라 안전펜스도 설치해 두어 마을 사람과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까지 살폈다. 벽화를 구경하며 계단에 오르다 보면 어느덧 마을 꼭대기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서는 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작고 조용한 카페에 주민들이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눈다. 아마도 동네 사랑방 역할도 겸하는 듯하다. 대화 소리를 벗 삼아 골목길로 들어서면 벽화향기 무지개길이 나온다. 색색이 아름다운 길답게 걸음마다 무지개빛을 품었다. 이정표를 찾아 이리저리 화전동 골목골목목을 누비는 동안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묘미를 느끼게 된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 테마로 조성된 만큼 모두 감상하려면 3~4시간은 족히 소요된다. 시간이 겹겹이 포개진 벽화와 함께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화전동 벽화마을. 이곳은 지붕 없는 갤러리이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우리 마음 속에 기억될 것이다.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양로62번길 일대

